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YahooFinance: 8월 미 핵심 물가 상승에 금리 인상 90% 가능성
- YahooFinance: 미 시장, 정부의 '부채 해결' 발언에 회의적

[미국 금융]
- CNBC: 고착된 고물가에 미 국채 금리 수년만에 최고치
- WSJ: 높은 물가 보고서… 주식은 오늘 상승했네

[오일]
- WSJ: 오일, 급등 후 오늘 소폭 하락

[인공 지능]
- Politico: 데이터센터 전력비 폭등에… 미 공화당, 빅테크 비용 부담 추진
- YahooFinance: 젠슨 황, "2030년 AI 시장 4조 달러 전망 재확인"

[주택]
- WSJ: 미 8월 기존 주택 매매, 1년 만에 최저치
- YahooFinance: "미 모기지 금리 2027년까지 6.8%대 고공행진"

[비즈니스아 기업 동향]
- WSJ: 미 패스트푸드 업계, 대면 서비스 강화한다

[공급망 일일 브리핑]
- KMI 글로벌 해운 공급망 브리핑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YahooFinance: Fed rate hike odds surge to 90% on monthly jump in core prices
8월 미 핵심 물가 상승에 금리 인상 90% 가능성

- 8월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며 다음 주 목요일 16일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.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다시 뛴 상황도 이 같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.
-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전월 대비 0.3% 올라 예상치(0.2%)를 웃돌았다. 전년 대비 상승률은 2.4%로 예상에 부합했다. 7월 대비로는 0.1% 하락했다. 전체 CPI는 전월 대비 0.4%, 전년 대비 3.4% 오르며 예상치와 같았다.
- 관련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수요일 연준 회의에 의 금리 인상 확률을 90%로 반영하고 있다.

기사

YahooFinance: America can’t grow its way out of its debt problem
미 시장, 정부의 ‘부채 해결’ 발언에 회의적

- 미국 경제가 악재를 맞고 있다. 40조 달러의 국가부채, 19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뛴 국채 금리, 이란 전쟁발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.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'경제 성장을 늘려 부채를 극복하겠다'는 해결책을 제시했다.
- 최근 트럼프와 연방 재무장관은 전쟁과 변동성 심한 시장을 달래려 연일 고성장을 강조하고 있다. 경제 규모를 크게 키워 부채 비율을 자연스럽게 줄이겠다는 취지다.
-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. 정부가 쉽게 고성장을 만들기 힘들뿐더러 포퓰리즘 정책으로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CNBC: Treasury yields remain near multi-year highs as August CPI shows sticky inflation
고착된 고물가에 미 국채 금리 수년만에 최고치

- 8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 발표에 미 국채 금리가 수년만에 최고치 수준을 이어갔다.
-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.572%를 기록했다.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장중 5.00%에 육박했으나 3.4 베이시스포인트 내린 4.91%로 마감했다.
-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는 30년물 금리도 장중 5.36%까지 오른 뒤 4.3 베이시스포인트 하락한 5.318%에 거래를 마쳤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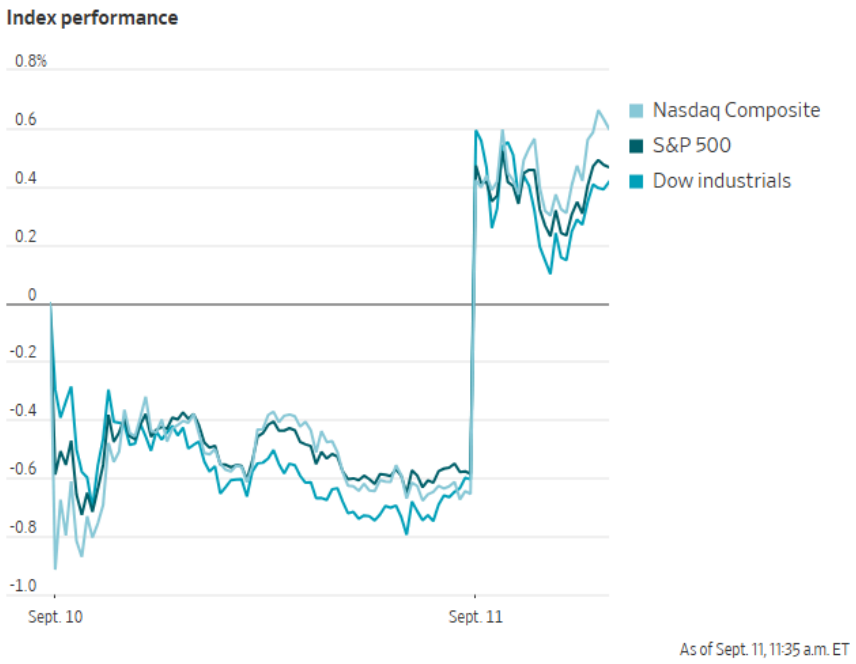
SYMBOL	COMPANY	YIELD	CHANGE
US10Y	U.S. 10 Year Treasury	4.938%	-0.006
US1M	U.S. 1 Month Treasury	3.854%	+0.015
US1Y	U.S. 1 Year Treasury	4.316%	+0.052
US2Y	U.S. 2 Year Treasury	4.617%	+0.067
US30Y	U.S. 30 Year Treasury	5.327%	-0.034
US3M	U.S. 3 Month Treasury	3.997%	+0.05
US6M	U.S. 6 Month Treasury	4.151%	+0.049

기사

WSJ: Why Are Stocks Climbing After the Hot CPI Report?
높은 물가 보고서… 주식은 오늘 상승했네

- 오늘 금요일 물가 지표 발표 직후 고금리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1% 이상 오르는 등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. S&P 500과 나스닥도 1% 가까이 상승 중이다.
- 이처럼 증시가 상승한 첫 번째 이유는 물가 급등에 다음주 연준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시장의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인플레 관리 의지가

확인되었기 때문이다.
- 두 번째 이유는 최근 급등하던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면서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었기 때문이다.



기사

[오일]

WSJ: Oil Prices Slip After Recent Surge Amid Supply Risks
오일, 급등 후 오늘 소폭 하락

- 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유가가 중동발 공급 차질 우려 속에서 오늘 금요일 초반 소폭 하락했다.
-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의 예멘 전략 요충지인 모카(Mokha) 항구를 점령하면서, 사우디가 의존도를 높여온 홍해 운송 경로에 새로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.
- 한편 사우디의 8월 원유 생산량은 하루 평균 약 1백90만 배럴 줄어든 6백24만 배럴을 기록하며 수급 불안을 자극했다.

기사

[인공 지능]

Politico: House will vote on legislation shielding consumers from data center energy costs
데이터센터 전력비 폭등에… 미 공화당, 빅테크 비용 부담 추진

- 미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비용을 테크 기업에 부과하는 법안을 다음 주 표결에 부친다.
- AI 수요 급증에 따른 데이터센터 폭증으로 전기요금이 뛰어오르자,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우려한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이다.
- 당초 표결에 주저했던 지도부도 유권자들의 반발과 정치적 압박이 커지자 선거 전 마지막 회기에서 법안 처리를 결정했다.

기사

YahooFinance: Nvidia CEO Jensen Huang just doubled down on his big 2030 prediction
젠슨 황, "2030년 AI 시장 4조 달러 전망 재확인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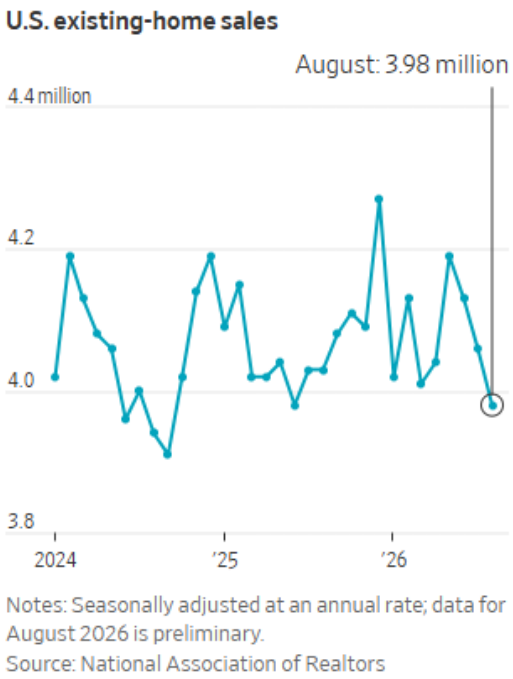
-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2030년까지 AI 시장 규모가 3조~4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.
- 황 CEO는 골드만삭스 테크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연산 체계의 도입과 무어의 법칙 종말을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했다.
- 특히 오답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려는 AI 모델의 고도화 수요가 맞물려, 향후 AI 산업이 거대한 규모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.

기사

[주택]

WSJ: Home Sales in August Tumbled to Lowest Level Since Last Year
미 8월 기존 주택 매매, 1년 만에 최저치

- 미국의 8월 기존 주택 거래량이 높은 모기지 금리와 시장 침체 여파로 전월 대비 2% 감소하며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.
- 미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(NAR)에 따르면 8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계절조정 연율 기준으로 2% 줄어든3백98만 건으로 집계됐다.
- 거래 위축에도 불구하고 전국 기존주택 중위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.6% 오른 42만 9,100달러를 기록했다. 한편 8월 미분양 주택 재고는 전월 대비 3.2% 증가한 1백62만 가구로 집계됐다.



기사

YahooFinance: When will mortgage rates go down? The bond market isn't helping.

“미 모기지 금리 2027년까지 6.8%대 고공행진”

- 미 모기지 금리의 조기 하락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.
- 모기지 기관 Fannie Mae는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2027년까지 6.8%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.
- 금리 하락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1) 5%에 육박한 미 10년물 국채 금리 급등이다. 여기에 2) 인플레이션와 관련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3) 기준 금리 외에 약 2%에 달하는 모기지 가산금리(스프레드)가 지속되면서 대출 금리에 강한 상향 압력을 더하고 있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WSJ: America’s Fast-Food Chains Are Making a Big Pivot—Back to Humans
미 패스트푸드 업계, 대면 서비스 강화한다

-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디지털 키오스크와 앱 도입으로 딱딱해진 매장 분위기로 고객이 줄어들자, 직원 교육 강화와 고객 서비스 우선 정책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.
- 맥도날드는 다음 달부터 고객 응대 강화 캠페인을 시작하며 연내 전 세계 2백00만 명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한다.
- 버거킹은 매장 관리자들에게 카운터 인력 배치를 늘리도록지시했으며, 웬디스는 AI 드라이브스루 시범 운영을 전면 재검토하며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섰다.

기사

[글로벌 해운 브리핑]

KMI 글로벌 해운 공급망 브리핑

- 후티 반군이 예멘 홍해 항구도시 모카를 장악하며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제권 확보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,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무인 감시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통제구역 확대를 선언했다.
-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100~106달러 구간에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으며, 유조선 운임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.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가 한 자릿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, 한국 정부는 11월 원유 선제 확보를 지시했다.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2,633.40	+568.9	+1.09%
US 500	7,674.90	+83.1	+1.09%
Dow Jones	52,623.69	+559.59	+1.07%
S&P 500	7,674.36	+82.57	+1.09%
Nasdaq	26,411.53	+329.80	+1.26%
S&P 500 VIX	15.74	-2.10	-11.77%
Dollar Index	99.073	+0.026	+0.03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.125	6/32	5.328	-0.040
10-Year Note	4.625	2/32	4.938	-0.031
7-Year Note	4.5	23/32	4.841	-0.019
5-Year Note	4.375	0/32	4.756	-0.008
3-Year Note	4.375	0/32	4.694	0.006
2-Year Note	4.125	-1/32	4.615	0.027
1-Year Bill	0	1/32	4.307	0.026
6-Month Bill	0	2/32	4.148	0.055
3-Month Bill	0	1/32	3.987	0.059
1-Month Bill	0	2/32	3.839	0.078

미국 USD	유럽 EUR	일본 JPY	중국 CNY	유로/달러	달러인덱스
1,340.90	1,555.91	872.61	199.89	1.1607	99.07
-10.10 (0.75%)	-12.74 (0.81%)	-2.48 (0.28%)	-1.33 (0.66%)	-0.0025 (0.21%)	+0.02 (0.02%)
9. 12. 00:43 ● 실시간	9. 12. 00:43 ● 실시간	9. 12. 00:43 ● 실시간	9. 12. 00:43 ● 실시간	9. 10.	9. 11. 11:33 ● 10분 지연

환전고시환율 | 국제시장환율

미국 USD

1
1 달러

대한민국 KRW

1,340.90
1,340.90 원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